마음의 스위치는 모두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 25면에서 계속

질 않고 간접적으로 잘 해서 오게끔 만듭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싸 짊어지고 나가서 좀 경험을 해 보고 '아, 이건 막다른 골목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연결해서 부러짐이 없이 다시 돌아서 들어오게끔 해서 건집니다. 그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한 것이 뭐냐? 가는 거를 잡지 말고 오는 거를 마다하지 마라. 가는 거를 그대로 둬야 막다른 골목인 줄 알고 다시 되돌아올 때가 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 왜? 잘못하는 사람은 항상 잘못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잘하는 사람도 항상 잘하기만 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에서 그냥,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이끌어 나간다면, 남과 내가 이익하도록만 이끌고 간다면 그대로이라 했거든요.

그러니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한 것은 아들과 어머니 아버지를 비유해 본다면, 고집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그냥 악착같이 요렇게 하겠다고 덤벼들 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그거 내버려 둬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보면 또 싸 짊어지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선 들어오게 되는 일이 많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달아나가는 그 마음 자체, 막 들이덤비고 화내고 그럴 때, 그때를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하던 아이들도 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그 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이제 인연에 따라서 또다시 돌아올 테니까 느긋하게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질문자3(여):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공부 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 쟤들도 자기 씨앗이 있겠지.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제가 학교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걸 보면 '저 애들도 자기 씨앗은 있지만 내가 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싹이 잘 트도록 하는 물과 거름의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아직 나는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제대로 씨앗을 싹트게 할 수 있는 물과 거름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전깃불이 여기 여러 군데 들어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곳이 다 밝죠? 그래서 전력은 똑같아요, 학생들이나 댁이나. 씨앗은 똑같다 이 소리지요. 그러니까 자가발전소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고 안 켜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달려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은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아, 저놈들 저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말로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커지지요. 그러니까 싹이 커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항상 그 씨에 수분을 주고 흙을 골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싹을 틔워 주는 거라고요. 싹을 틔워 주고 그다음엔 그 싹이 길러지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좋은 역할을 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는 한 스위치만 올려도 불이 전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밝게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스위치는 그렇게 모두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천차만별의 만물만생이 전체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과 댁이 그것쯤이야 연결이 안되겠소?

본원에 선생님들 팀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팀에서 하는 말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방송국에 나가서 어린이들 가르치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공부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도 영리하게 아주 잘해 나가더랍니다. 지원마다 체험담을 다 써 오너라, 일기처럼 써 오너라 그랬더니 그렇게 잘했더랍니다. 그렇게 싹이 잘 길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그만 애들 때부터 그렇게 관하는 도리를 길러 주면 어디다가 내세워도 손색이 없고, 이다음에도 말입니다. 끝끝내 자기 뿌리가 자동적으로 이끌어 주게 되죠. 이리로 가서 망할 거라면 저리로 가게 하고, 말을 잘못할 거라면 말을 잘하게 해서 말과 말을 조절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게끔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묘법은 잘 모를 거예요. 해 보세요.

대중 가운데서: 공부를 못하잖습니까?

큰스님: 그거는 대신 먹어 줄 수가 없죠. 여러분이 먹고 그대로 배가 부르듯이 그렇게 하셔야죠.

질문자4(여): 저는 지금 물만 먹어도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배가 아프고 숨이 차서 말도 못하겠거든요.

큰스님: 연방 감자 생즙도 내서 먹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영양제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자3(남): 영양제 하루에 두 번씩 먹습니다.

큰스님: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보는 눈이 말입니다, 스님 노릇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주 가난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 나처럼 못난 사람을 볼 때는 너무도 가슴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어려요. 내가 못난 건지 잘난 건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이 인간으로 살면서 돌아가는 본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스님 노릇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는, 자나깨나 쉴 사이가 없고 자나깨나 정신력이 항상 그대로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차만별로 들고 나는데 말입니다, 새 물이 들어왔다 헌 물이 또 들어오고, 들어오면 또 새 물로 갈고 연방연방 이렇게 하는 대치 역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시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받은 사이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또 준 사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도리를 아신다면 참 영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만금을 갖다 줬어도 나는 한 푼도 받은 사이가 없습니다. 이거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가게 물건 사러 갔을 때 돈 갖다 준 예가 있습니까? 물건을 가져오고도, 네? 물건 사러 갔으면 물건 사 왔으니까 돈 준 사이가 없죠?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또 돈 받은 사이가 없죠? 준 사이도 없고 받은 사이도 없어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조사께서 말입니다, 누가 천도를 시켜 달라고 왔는데 천도비를 가져온 걸 가지고 재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보니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방을 못 얻고 거리로 나앉아서 모두 옹기종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줘 가지고 방을 얻게 해 줬거든요. 그러고서는 물건을 못 사고 그냥 왔는데 천도를 안 시켜 주느냐고 자꾸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도를 안 시켜 줬다고 생각을 하면 도로 돈 가져가라." 그랬답니다. 나도 그래 본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하하….

어느 사람이…, 그때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가발 통상을 하는 집인데요, 아주 망하고 망하고 자꾸 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꿈을 꾸면 꼭 조상들이 그냥 엉겨 붙어서 싸우고 뭐 야단들이랍니다. 절이라는 절은, 좋다는 데는 다 가서 천도를 시켜도 꿈을 꾸면 여전히 또 대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싸우다간 도로 들어온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돈을, 그때 화폐 개혁 되고 얼마 안 돼서니까 몇십만 원도 많죠? 그때 3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그거는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그때 치악산에서 내려와서 얼마 안 되어서예요. 아니 뭐, 절도 없죠. 신도 집 사무실 방에 그냥 앉아 있었으니 갖다가 주는 것만으로도 '참, 저 사람이 뭘 보고 이러나?' 하는 생각에서 참 감동이 됐죠. 감동은 했지만 천도를 해 달라고 갖다 주니 어떡합니까?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았던 방석에 놓고 절하고 가라고 그랬죠. 아, 그랬더니 투덜투덜해요. 그럼 도로 가져가라고, 왜 투덜투덜하느냐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 참! 배짱이 참 두둑하신 스님이네." 이러고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놨던 걸 집었다가 다시 놓고선 절을 하고 갑디다. 가더니 그날 저녁 꿈에 모두 그냥 구름을 타고 전부 올라가더랍니다. 아, 그러고는 그 가발 통상이 그냥 불 일어나듯 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부터 "참, 묘법이라는 것이 다 우리들한테, 우리 마음에 주어져 있군요!" 하면서 그렇게 와서는 절 짓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마는 그것도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모두 여래고 절이 여래의 집인데, 여러분의 집인데 왜 내가 걱정을 해야 합니까, 네? 다 공동 분담인데. 여래 집을 만들려면 나도 애써야 하고 여러분도 애써야 하고…. 여러분이 다 여래 아닙니까? 여래의 집을 만들려면 다 공동으로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오늘도 참, 개원식을 하고 그랬는데 한마음으로 이렇게 이룩하셨으니 여러분의 그 정성과 결단이 아주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만들겠다고 처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룬 그분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요. 내가 감사할 건 없지만 말이에요.하하하!

또 질문할 분 없습니까? 하여튼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해 드린 거를 참작하셔서 '우리는 어디에고 병고도 애고도 붙을 자리가 없다. 내가 한 게 없다. 나는 그렇게 수십억의 내 모습과 내 생명과 의식이 있고 나는 혼자 한 게 하나도 없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한 거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다 맡기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는
한 스위치만 올려도 불이 전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밝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2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TEL 063)631-0108 / FAX 063)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